

사람을 건지려면 내면부터 건져야 거죽이 건져진다

29면에서 계속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변소 문을 타고, 강도가 느닷없이 방문을 찍 열고 들어 오는데 신사복을 아니, 아래 위 아주 똑같은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입고선 쪽 빠고 들어왔는데 하나 뒷도 줄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 칼로 죽인다 하더라도 줄 것이 없으니 어떡하나.” 그랬더라요. 그러니까 그 시계라도 달라고 그래서 쥐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환희심이에요. 지금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자기는 여유 있게 환희심을 가졌기 때문에 돌로 보지 않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극한 사정에 어렸었다면 나도 저랬을 거다. 만약에 한 열흘 굶었으면, 내가 굶는 거보다도 자식들이 있어서 자식들이 굶어서 부황이 나서 죽게 됐을 때 나는 저거보다 더했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써 환희심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부인 반지도 아주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의 있게, 그냥 반지고 뭐고 시계고 뭐고 다 빼줘서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가지고 가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걸 들고선 한참 보더니만 주머니에다 넣고 말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칼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심이라는 것이 무슨 잘돼서만이 환심이 아니라 극한 사정이 있어도 환심은 있어요. 그게 지혜로서 물리가 터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죠, 여유 있게.

지금 견성이라는 거 말했죠? 그런데 견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만남에 의해서 견성이요, 즉 말하자면 내 이 몸속에 있는 생명체의 의식들이 다 조복을 하고 또 나아가서 거기서 조복을 하게 되면 자기 주인공과, 즉 자발과 자기 육체와 둘이 아니게끔 만남이 있죠. 그거를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게 견성의 진로를 지금 쥐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 보지 않고는 이렇게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느 데까지, 부산을 갔다 왔다가 미국을 갔다 왔다든가, 갔다 와서 거기 갔다 오니까 이렇더라 하고 그 길을 얘기하지, 갔다 오지도 않고 어떻게 그 길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모두 그것을 집착하고 알고 스스로서 조복이 되고 스스로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요, 돌아나게 되고 있죠.

이게 얘기로 하려면 참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몸 안에도 천차만별의 의식이 들어 있어요. 그럼 이 몸뚱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 개 체죠. 한 개 체인데 그 생명들의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같아요. 즉 말하자면 집합소죠. 그런데 그 집합소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전부 이 거죽의 내 몸뚱이로서 그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도 심부름을 안

해 줘요. 안 그래요? 내가 먹을 거를 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작용을 못해 줘요. 여기서 주면은 작용을 해 주고 여기서 안 주면은 그냥 송장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들이나 나나 서로 도와주는 형상이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해주다 보니까 인제 그 양면을 다 다스리는 내 선장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자발이라고 하지마는 그걸 주인공이라고 해도 돼요. 그 ‘주인공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는 그 양면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작용을 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선장으로 인해서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선장으로 인해서 다스려진다는 걸 알게 되고, 선장으로 인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로 한생각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색경을 봐, 네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똑같이 있는데.’ 하고 보이죠? 색경을 보는 놈도 그렇고 비치는 놈도, 즉 말하자면은 환상일

겠지요?

답) 이거는 내가 아무리 그러하고 싶어도 대신 내가 툭 뉘 줄 수도 없고 병 앓는 걸 대신 알아 줄 수도 없고, 또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대신 잠자 줄 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의 섭류를 자유자재하려면 자기만이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에 모든 전파를 하고, 또는 유(有)의 세계는 말로 하고 몸으로 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무의 세계의 중용은 한참나에 오고 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모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차원이 이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나가고, 차원대로, 그래서 서로, 우연이라는 건 없습디다. 인태를 해서 애틀을 때 그 어른들 차원에 따라서 인태가 됩니다. 종자가 있죠, 왜?

하면은 늙은이처럼 보였어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는데 어느 스님이 가시다가 인제 그 애를... 아니, 내가 애길 거꾸로 했네요. 애를 인제 낳아서 기르는데 두 형제를 낳아서 길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인제 죽고 살았는데, 형제를 낳았는데 어느 중이 가다가 보시고선, 그 애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예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재가 서당엘 가면은 서당에 갔다 올 때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나는 깻벌레고 하나는 거미다. 거미가 원수를 갚으려고 나온 거니까 절대로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철사로 이렇게 망을 해서 둥그렇게 빙어질 집 모양으로 해서 놓고는 거기다가 가마뱀을 이렇게 하고 조금만 새를 내 놓고 그 안에다간 갈뿔을 질러서 놓고, 그러고서는 올 때가 되면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당신 스스로 항아리 뚜껑을 덮고 아무리 불

나에 따라서 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몸속에 있는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선업도 있고 악업이 있고, 인과도 있고 우연도 있고 모두, 영계성도 있고 모두 거기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것이 다 사라진다 이 소리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하는 것도 고시간에 마침, 또 고통에 가는 수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우연하는 아니예요. 모두가, 그냥 가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그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절대 철칙이예요. 자기가 죄를, 알지 못하게 죄를 지으면 알지 못하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다면 알게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잘되고 모든 것을 그 공한 중심에다가 다 맡겨 놔라. 네가 죄 짓는 게 아니다.

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공생이 아닙니까.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화 하고 그냥 같이 돌아가는데, 더불어 같이 살아갈 때는 뭐가 내가 따로 있습니까. 내가 따로 지을 죄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을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막 해도 죄가 안 된단다.라.’ 하고 이력하신 안 되죠,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려서 그 불기둥, 즉 말하자면 중심주에다가 모든 것을 보라 이겁니다. 거기다 맡겨라.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수레가 바로, 우리 돌아가는 몸이 다 거기에 꿰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가족에게 마음공부 인연 맺어 주고 싶은데
문)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권해 보지만 인연을 맺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연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답) 인연이 없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자꾸 붙들고 저저 하면 외려 도망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렇게 ‘돌이 아닌 데...’ 하고 결정을 지어 놓고, 그냥 보이는 데서는 씻은 듯 없는 듯 있는 듯 하게 그냥 해 버리면 어느 땐가는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알게 돼서 점점 점점 그 마음먹던 것이 달라지게 되죠. 달라지게 돼서 결국은 같이 친밀하게 돼요.

그게 말을 안 듣는 것도 설득하려니까 그래요. 설득을 해서, 친밀하지 못해서, 그렇게 친밀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많아서 불쌍한 생각, 안된 생각을 많이 했지 지금 현재 물질적인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 친밀해보지 못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면의 주인공과 같이 돌이 아니게끔 해야 그 사람이 껌테기가 듣게 되는 거죠. 그게 건지려면 내면부터 건져야 거죽이 건져진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부처가 있다면 할 거고 부처가 없다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살아가 이겁니다.

물에 파도가 치면 파도 치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어떠한 용도에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처에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최고예요.



뿐이죠.

그런데 그 관상을 자꾸 점프해 가면서 일으키고 작용시키고 하는 고놈은 바로 색경을 봐도 비치지 않아요. 그냥 당신 마음의 거울이 다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들어서 견성이야 성불이다. 그 이름만 들어서 견성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대신 견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품,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없든 있든,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처만 꼭 믿고 하세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런 걸 듣더라도, 어떠한 경을 보고 놀라더라도 거기다가 놓고 평등하게 공법으로 그냥 가세요.

각종 사고들이 우연은 아니겠지요

문) 현대 사회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식이 부모를 해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 하기도 하며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

대주 종자라든가 무 종자라든가 종자가 있듯이,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복숭아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리듯이 그거는 피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을 지은 대로, 고 차원대로 가서 인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게 되죠. 강통끼리 모였으면 강통끼리 소리가 나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저저 해도 소리가 나죠. 즉 인과를 지었으면, 또 업을 지었으면 서로가 그 업 지은 사람들끼리, 원수들끼리 만나고,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예가 있죠.

옛날에는 깻벌레 하고 거미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오줌을 통에다가 담아 가지곤 것들을 오줌에다가 넣어서 죽였어요. 그것이 이 하루 강통으로 잡아도 고 이틀날 또 봐도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는지, 그냥 이 오줌통에다가 그냥 집게로 담아서서 저저 하면 그냥 오줌통에다가 넣고 뚜껑 덮어 놓고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한 오십 살이 되도록, 아니 사십 몇 살이 되도록, 옛날에는 사십 몇 살이 다

러도 대답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인제 하고 나니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하고 들어오더니만 그냥 막 악을 쓰고 울고불고 그냥 엄마 아빠를 찾고 막 울고 그러더니 어느 시간이 가니까, 이 연놈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이 연놈들, 요 때에 원수 같을 땐데 어디로 갔느냐고 그냥 팔팔 뛰고 울고 그러더니만, 너무 징그러워서 그 한 시간 동안 나오질 못하고 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양쪽에 두 군데다가 해 났는데, 하나는 깻벌레고 하나는 거미인데 그냥 전부 걸쳐서 거기에 우물우물하더라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넘겨서 그거 실려줄 거죠. 그러니까 깻벌레하고 거미하곤 다 그스님께서 다시 그 옷을 벗기고 천도를 시키고, 그 두 부부는 거기에서 모두 달려들어서 물어 먹힐 텐데 고만 물어 먹히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부처님 앞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생을 보냈대요.

한편 거와 같이 모든 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게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료배송 66%



에pson AL-2310D 125,000원

무료배송 57%



에pson FS-1120D 110,000원

무료배송 70%



OKI-B410D 90,000원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 하루사용 특AAA급 중고
- 전시장품 절대 아님
-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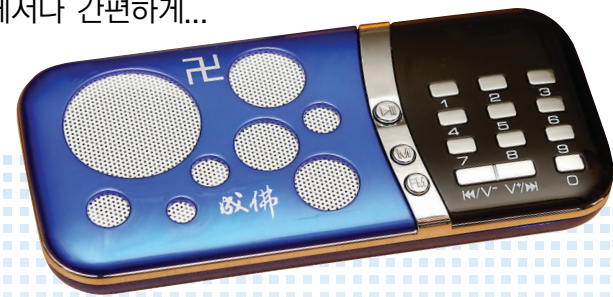
구매문의
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리뷰에서 철성상회 검색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6만원 (배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 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현대불교헌불상 (02)2004-8214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현의 삼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아침의 기도
-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 4. 병마 재유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만 가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영 광화
- 10. 저녁의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반송으로 왔다가
- 13. 사랑을 읊뵈는
- 14. 여름 별레는 거울이 있음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바르면
-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광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진언 1
- 22. 광명진언 2
- 23. 개경계
- 24. 지경관덕분
- 25. 예불을
-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한계
- 30. 법상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경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니다
- 36. 예불가
- 37. 청법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법우 광경가
- 40. 부처님께 기림받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찰서원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김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성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홀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악장
- 53. 관세음보살 2악장
- 54. 개경계
- 55. 이상정법문